

국교교사 교과전담제 희망 55%

전교조 조사 法定수업시간 정해 수당지급 50%

여교사 46% 출산휴가 2개월 다 활용못해

대부분의 국민학교교사들은 과다한 수업시간분배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전담제를 도입하거나 법정수업시간을 정해 그 이상의 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여교사들은 60인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여교사가 업무부담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이 같은 사실은 전교조가 국민학교교사들의 근무조건 파악을 위해 지난 달 한 학교당 1명씩 전국 5백 16개 국민학교교사를 본부에서 조사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.

이 조사에 의하면 전정학급당 인원을 16~25명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7.5%로 가장 많았고 주당 수업시간은 16~20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46.3%, 21~25시간이 41.5%로 현재의 28시간보다 대폭 줄여 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교사들은 과다한 수업시간 문제는 교과전담제를 도입(55%)하거나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(50.2%)으로 해결되기를 원했다.

교과전담제가 시급한 과목은 음악, 미술, 체육, 자연, 실과 순으로 나타났다.

여교사의 출산휴가 일수는 1개월 이내 18.7%, 1~2개월 미만 27.1%로 45.8%가 규정휴가 일수인 2개월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교사들은 학생관리 등 학내외 건의 열려 있기 때문(32.7%), 학교장이 받아주지 않아서(30.6%), 또는 법정일수를 몰라서(10.2%)라고 응답했다.

또한 출산경험이 있는 여교사 49명 중 22명(44.9%)이 사산이나 유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여교사의 임신절벽률이 다른 직종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동 1990년 9월 25일